

호남대, 이주민 안정 정착 외식 창업 지원 나섰다

RISE사업단, 평생교육 프로그램 진행...메뉴 현지화·경영 노하우 전수

호남대학교 RISE사업단(단장 정제평)은 최근 지역 선·이주민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과 성공적인 외식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글로벌 메뉴 현지화 및 창업 모델 개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광주형 미래라이프 커뮤니티 아카데미' (책임교수 김영균)의 하나로 기획됐다.

호남대학교 외식조리베이커리학과 실습실에서 외식 창업을 희망하는 선·이주민 20명을 대상으로 지난 12일부터 2월 6일까지 총 6회가 진행된다. 강의는 무료다.

이번 교육은 최근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 속도가 빨라지면서 이주민들의 식당 창업이 늘고 있으나, 체계적인 기초 교육 부재로 실패 사례가 빈번해짐에 따라 마련됐다.

특히 본국의 맛을 고수하다가 국내 소비자들의 입맛을 맞추지 못하는 '현지화 실패', 국내 위생법

규 및 경영 노하우 부족이 주요 폐업 원인으로 지적됨에 따라 대학의 노하우를 전수하고 사회정착과 성공적인 창업을 돕기 위해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호남대학교 RISE 사업단은 이러한 지역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순한 조리 교육을 넘어, 산학협력을 통한 '실증 모델'을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성공 가능성이 검증된 외식 창업 표준 모델을 대학이 먼저 정립하고, 이주민 예비 창업자들에게 전수함으로써 창업 성공률을 높이고 폐업률을 획기적으로 낮추겠다는 전략이다.

교육 과정은 실질적인 창업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한국 전통 음식 교육(현지 적응력 강화), 튀르키예 및 인도 음식 교육(글로벌 메뉴의 현지화 전략), 창업을 위한 실증 창업 교육(상권 분석 및 마케팅), 조리 및 위생 안전 교육(식품위생법

및 주방 안전)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주민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한국의 위생 법규와 안전 기준을 철저히 교육, 창업 후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데 힘쓰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호남대학교 RISE 사업의 핵심 목표인 '지역 현안 해결'과 '정주형 인재 양성'을 동시에 달성하는 모델로 평가받는다.

대학이 보유한 외식 조리 인프라와 전문 교수진을 활용해 이주민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지역 사회와의 지속 가능한 공생 구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운영 책임자인 김영균 교수는 "이주민 식당 창업은 단순히 개인의 생계를 넘어 지역 음식 문화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골목상권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이번 아카데미를 통해 배출된 교육생들이 우리 지역의 성공적인 외식 사업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호남대 RISE사업단(단장 정제평)이 진행한 '글로벌 메뉴 현지화 및 창업모델 개발'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가자들이 성공적인 창업을 다짐하고 있다. <호남대 제공>

남부대 방사선학과 국시 전원 합격

남부대학교(총장 조준범) 방사선학과가 보건의료 전문 인력 양성 분야에서 독보적인 성과를 거두며 주목받고 있다. 남부대학교는 최근 시행된 '제53회 방사선사 국가시험'에서 졸업 예정자 31명 전원이 응시해 100% 합격했다고 19일 밝혔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이 주관한 이번 시험의 전국 평균 합격률은 83.3%로 나타났다. 이번 성과는 대학 측의 전폭적인 지원과 학과의 체계적인 커리큘럼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남부대 방사선학과는 학생들의 국가고시 합격을 위해 전공 맞춤형 집중 특강, 실전 대비 모의고사 프로그램, 교수와 학생 간 1:1 밀착 멘토링 등 다양한 학업 지원 시스템을 운영했다.

특히 최첨단 실습 장비를 활용한 임상 현장 중심의 교육 방식은 이론과 실기 능력을 동시에 강화해야 하는 국가시험에서 큰 효과를 거두었다.

여하연 남부대학교 방사선학과 학과장은 "전문적인 지식과 인성을 겸비한 최정에 방사선사를 배출해 지역사회와 의료계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시교육청 '기초학력전담교사' 98.4% 만족

초등 학생·학부모·교원 대상 조사 학력향상·학교 적응력 제고 도움

광주시교육청의 '기초학력전담교사 제도'가 1학기에 이어 2학기에도 내실있는 운영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교육청(교육감 이정선)은 최근 기초학력전담교사제를 운영 중인 관내 45개 초등학교의 학생·학부모·교원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한 결과, 평균 98.4%가 기초학력전담교사제에 대해 만족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학생들의 기초학력 향상 기여도'에 대해 응답자의 97.6%가 긍정적으로 답해, 1학기(96.8%) 대비 성과가 확대되었으며, 제도 운영 확대의 필요성 또한 97.7%의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1학기(96.3%)보다 상승했다.

기초학력전담교사의 지도를 받은 학생의 93.6%가 '수업을 통해 학교 생활에 자신감을 얻었다'고

답해 단순한 학력 향상을 넘어 학교 적응력 제고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학부모들의 만족도 또한 매우 높아 응답자의 99.7%가 제도의 지속적인 운영을 희망했다.

월계초의 한 학부모는 "아이의 작은 변화와 성장을 놓치지 않고 따뜻하게 지도해 주신 덕분에 학습에 대한 부담감이 줄고, 학교생활에 대한 자신감도 회복되고 있음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정선 교육감은 "기초학력전담교사 제도는 학생들의 학습 격차를 해소하고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높여 '기본교육'을 실현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현장의 높은 요구를 반영하여 단 한 명의 아이도 배움의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기초학력 보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초학력전담교사제는 지난 2025년 기초학력보장 선도학교(공모형 기초학력전담교사 운영) 44교에서 2026년에는 50교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최현호 해수부수상정책실장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 박학민 민정경제위원회사무장 김성훈 인사혁신처 차장 김상경 농촌진흥청 차장 성제훈 국립농업과학원장

전남대 출신 인재들, 정부 요직 잇단 발탁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장관급·1급 고위 공직 진출 이어져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전남대 출신 동문이 국가 주요 부처와 위원회의 요직에 잇달아 임명돼 주목된다.

19일 전남대학교에 따르면 2025년 하반기부터 2026년 1월까지 해양수산, 개인정보 보호, 인사 행정, 통일 정책, 농업·농촌 정책 등 국가 운영의 핵심 분야에서 전남대학교 출신 동문들이 장관급 및 1급 고위 공직자로 연이어 임명됐다.

해양·수산 정책 분야에서는 자연과학대학 해양학과 90학번 최현호 동문이 2025년 10월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1급)으로 임명됐다.

같은 시기,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86학번

송경희 동문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장관급)에 취임했다.

이어 2025년 11월에는 법과대학 행정학과 86학번 박학민 동문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차장(1급)에 임명됐고, 경영대학 경영학과 85학번 김성훈 동문 역시 인사혁신처 차장(1급)으로 취임했다.

2026년 1월에는 농생명 분야에서도 전남대 동문들의 역할이 이어졌다. 농생대 축산학과 93학번 김상경 동문이 농촌진흥청 차장(1급)에, 농생대 농공학과 86학번 성제훈 동문이 국립농업과학원장(1급)에 각각 임명됐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전남교육청, '교육물품박람회' 참가업체 모집

지역 중소 제조업체 판로 확대

학교 현장 우수 교육기자재 발굴

전남교육청이 지역 중소 제조업체의 판로 확대와 학교 현장에 필요한 우수 교육기자재 발굴을 위해 '2026년 제4회 전남교육청 교육물품박람회'에 참가할 업체를 모집한다.

전남도교육청 교육물품박람회는 2022년부터 3회에 걸쳐 운영된 대표 교육물품 전시·체험 행사로 올해부터는 격년제로 개최해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박람회는 3월 25~27일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서 개최된다. 실질적인 교육 현장 적용과 계약 연계에 중점을 두고, 지역과 공생하는 '글로벌 전남교육' 비전 실현을 핵심으로 추진된다.

전남 지역 내 중소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학교 수요가 높은 교육기자재, 디지털 미래교육, 안전·환경 관련 물품 등을 폭넓게 전시할 계획이다.

특히 학교 실무자가 직접 제품을 체험하고 상담할 수 있는 현장 중심 전시, 물품 설명회 및 제품 시연 프로그램, 학교-업체 간 1:1 상담 등을 통해 박람회 이후 교육기관에 실질적인 납품과 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계 기능을 강화한다.

모집 분야는 전남도에 사업장을 둔 지역 제조업체와 에듀테크 관련 초·중·고(지역 무관)이며, 학교 현장 적용 가능성과 기술 경쟁력, 지역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한다. 모집 기간은 오는 26일까지이며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등 세부 사항은 전남도교육청 누리집(www.jne.go.kr)의 모집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이선국 전남도교육청 행정국장은 "2026년 교육물품박람회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실현하는 장이 될 것"이라며 "우수한 기술력과 제품을 보유한 지역 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74 광주일보 74년 - 유튜브 3천만뷰 돌파







대한민국 판매 1위 펌프 윌로펌프

강력한 성능! 합리적 가격! 농사용 펌프도 역시 윌로펌프

전국 132개 서비스망